

태풍 '타파' 휩쓴 전남, 인명피해 8명

벼 침수 496ha · 도복 323ha · 주택 36곳 파손

2103가구 정전...여수 양식장 피해조사 중

제17호 태풍 '타파'(TAPA)로 인해 전남에서는 모두 8명의 인명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쯤 목포시 석현동 교회 외벽의 벽돌 일부가 떨어져 인근을 지나던 50대 여성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다.

또 23일 오전 7시50분쯤 완도군 군외면에서 강풍으로 담장이 무너

져 70대 여성이 허리골절상을 당했다.

이밖에도 강풍으로 체육관 유리창과 창틀이 깨져 4명이 다치는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많은 비와 강풍으로 재산피해도 속출했다.

목포와 신안에서 2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고 지붕과 유리창 파손, 벽돌 탈락 등 36건의 주택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벼 침수와 도복 피해도 잇따라

나주 210ha, 신안 155ha, 해남 120ha 등 모두 496ha가 물에 잠겼다.

또 영광 73ha, 담양 60ha, 함평 52ha 등 323ha 벼가 추수를 앞두고 쓰러졌다. 비닐하우스 0.4ha이 파손 피해를 입었다.

여수 화태해역의 가두리 양식장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풍량으로 인해 아직 정확한 피해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6곳과 옥의 간판 44건이 강풍으로 날아갔다.

공공시설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진도와 여수, 신안에서 도로 비탈면 4곳이 유실되고 구례 시암재~성삼재 구간에서 낙석이 발생해

정비중이다. 곡성 삼기초 체육관 유리창이 깨지는 등 교통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여러 곳이 강풍에 파손됐다.

도내 2103가구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으나 복구가 완료됐다.

전남도는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해 구호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관 부서별로 피해지역을 정밀조사한 후 피해 농어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농작물 및 양식장 등에 대해 복구 지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1

코레일 상급자, 여직원 상습 스토킹 의혹

코레일 광주본부 상급자가 20대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고 납치까지 시도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코레일이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광주본부에 근무하는 40대 상급자 A씨가 20대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납치를 시도했으며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본사차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제 딸을 살려주세요' 공기업에 이런 약자가 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23일 현재 212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같은 논란에 코레일은 "관련 논란이 있기 전 A과장과 피해자의 근무조를 바꾸는 등 업무 분리를 시켰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A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A과장의 징계 등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코레일 상급자, 여직원 상습 스토킹 의혹

코레일 상급자, 여직원 상습 스토킹 의혹

코레일 상급자, 여직원 상습 스토킹 의혹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아동학대 8276건 발생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아동학대가 8276건이 발생했고, 아동을 재학대하는 경우도 7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만7413건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는 856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14년 164건, 2015년 253건, 2016년 346건, 2017년 796건, 2018년 973건 등 2532건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의 수가 2014년의 5.9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또 아동 재학대도 2014년 16건, 2015년 26건, 2016년 33건, 2017년 71건, 2018년 59건 등 총 20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비해 4년 새 3.7배 늘어난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증가폭이 가장 높다.

전남의 경우 총 5744건의 아동학대와 549건의 아동 재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새하얀메밀꽃 세상 절기상 추분(秋分)인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메밀밭에 소금을 뿌려 놓은 듯 메밀꽃이 새하얗게 만발해 있다.

건설노조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하고 지역민 우선고용"

광주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을 외치며 5일째 타워크레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건설 노동자들이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중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분부는 23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불법고용은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건설인력 기반을 무너뜨려 국내 건설산업 전반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관계자들도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작업 숙련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고용으로 부실시공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은 단순히 건설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고용 외국인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저임금과 장시간 중노동에 내몰린 채 임금체불,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시와 지역 건설사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외국인 불법고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건설 노동자가 우선고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광주·전남 지역 건설업체들도 불법고용 외국인을 즉각 퇴출하고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6일 복귀 임동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고용 외국인 노동자 적발 사건을 언급하며 업체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뉴스1

이슈 판결

알바여성 13명에 성범죄 20대 카페사장 징역 3년 확정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모씨(27)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요미수 등으로 피해자만 13명에 달했다.

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소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씨(17세)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총 11회에 걸쳐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금천구 소재 다른 카페에서 종업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해 총 29회에 걸쳐 9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명에게는 유사성행위를 요구해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은 "범행동기, 방법, 내용, 횡수, 결과, 일부 피해자들의 연령 등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우씨가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상당수의 피해자(9명)와 합의해 그 피해자들이 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우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형이 다소 감형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검찰과 우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 조기 발견, 자라치로 공인 인허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임신기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